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 나주천 재해예방시설 현장점검

침수 예방과 수변환경 개선 기대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조성사업 현황 점검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나주천 재해예방시설과 생태물길 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침수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7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조성사업 현황을 찾아 우기 대비 재해예방시설 운영 준비 상황과 주요 공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시침수 예방시설의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36억 원을 투입해 펌프장 증설, 유수지 확장, 교량 재가설, 차집관로 및 호안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태하천 복원과 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유수지와 유입수로 조성을 완료하고 펌프장 시험 가동을 마쳤으며 교량 재가설과 차집관로, 호안 정비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경현동부터 삼도동 일대를 지나는 지방하천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저지대 침수가 반복돼 재해예방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성백 기자

담양군,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8월 31일까지 접수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농업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경영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업 계열 대학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이어야 한다. 군은 15명 내외를 선정해 총 75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에게는 연간 1회, 최대 5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유통과(☎061-380-2714)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군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공모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화순군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 복지,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영광굴비배 전국 탁구대회 성료

전국 탁구 동호인 600명 열전...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



제2회 영광굴비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제2회 영광굴비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영광군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군에서 탁구 동호인 약 60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승패를 떠나 서로의 실력을 응원하며, 탁구를 통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복식,

개인단식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부문마다 치열한 접전과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선수들은 빠른 랠리와 집중력 있는 경기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전국 탁구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참가 선수와 가족,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며 스포츠 관광 효과를 높였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고교생, 세계 무대로 출발!

4일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 출정식... 13일까지 프랑스, 독일, 체코 방문

장성군이 지난 4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 출정식을 가졌다.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는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군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성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지역 내 4개 고교생이 참여한다.

첫걸음을 뗀 지난해에는 고교생 22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일러 김나지움과 훔볼트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한 ‘청소년 실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에이아이(AI) 시대, 비판적·주체적 사고능력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다. 사전수업과 본수업(국외체험), 사후수업, 성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 내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6명이 오는 13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 독일, 체코를 차례로 방문한다. 역사·문화 탐방



김한중 장성군수가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과 진로 상담, 국제교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캠프가 경험과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해외 교육기관과 문화 현장을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게 된다. 또한 국가별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현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폭넓은 시야를 넓힐 예정이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